

진실을 외면한 역사는 외롭다

김영우/SBS라디오 방송국 PD

일 본 군대 위안부 문제가 국제노동기구에서 사상 처음으로 총회의 정식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졌다고 한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국제노동기구에 대한 일본의 입김도 막강하고 적극적으로 군대 위안부 문제가 의제로 채택되는 것을 막으려고 일본은 노력했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되자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놀라워 한다는 소식도 들렸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 보자.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력으로 세계 곳곳에 돈을 뿌려 왔다. 국제기구 분담금이나 어려운 나라에 원조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사실은 일본의 경제력에 대한 하나의 예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일본이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다른 나라나 국제기구를 돕는지 의아해 한다. '좋은 사람 일 리가 없는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이런 판단은 우리 나라와 일본의 특수한 관계에서 온 측면이 많다. 무조건 일본은 나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 그런 좋은 행동도 마음에 들리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 반드시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일본이 다른 나라를 돕고 국제기구에 돈을 많이 내는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이라는 오명을 씻는데 있기 때문이다. 이런 노력은 상당한 효과를 거둬서 많은 나라들이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킨 국가라는 사실을 잊어 가고 있다. 오히려 일본이 세계 평화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더



큰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경향도 있다.

우리가 일본에게 역사적 진실을 말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일본이 반성은 커녕 당당한 이유로 뒷배경에 일본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세계의 많은 나라와 국제기구들이 있기 때문이다. 독도 문제만 해도 우리 나라가 강경하지 못하고 끌려 다니는 듯 했던게 국제문제화 된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 나라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번 국제노동기구 총회 정식의제에 일본의 군대 위안부 문제가 포함될 것이라는 소식은 이런 상황에서 나왔기에 의미가 있다. 국제관계가 약육강식과 경제적 힘에 따라 갈린다는 일반적 사실을 이번 사건은 통쾌하게 뒤집었다.

진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밝혀져야 하고 미화되거나 은폐해서는 안된다는 당연한 사실이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말이다.

그 동안 정부는 군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말이다. 여러 이유 중에는 과연 일본에게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제여론을 만들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서도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우리 정부에 대해 소극적 자세를 질타하는 측면도 있다.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 앞에는 어떤 두려움이나 방해도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말이다.

작은 기적을 이룬 국제노동기구 한국 대표단에 축하를 보내며 우리 정부가 일본에게 좀 더 당당해 지기를 격려해 보자. **PPFK**